59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

차수	19-1차 긴급
일시	17. 06. 09 18 : 00
장소	총학생회실

참석확인 (8/14)

간호	경경	공대	법학	사범	사과	약학	예술	인문	의학	자연	동연	부총	총
o	x	o	x	x	o	o	x	o	x	x	o	o	o

❑ 보고 안건

1. QS 평가 관련 현 사태 전파

- 어제 17. 06. 08(목) 국내 언론을 통해 QS 세계대학평가 순위가 공개되었고, 중앙대학교가 랭크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기획처장의 글이 중앙인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
- 사건의 경위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매년 발표되는 QS세계대학평가에서 중앙대학교가 랭크에서 빠지게 되었으며 QS에서 밝힌 이유는 중앙대학교에 유리한 비정상적인 데이터가 있어 조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는 확실하다고 판단하여 중앙대학교를 제외했다는 것입니다.
- 금일 총장단의 입장문에서는 "실무자가 우리 대학의 순위 상승에 기여하려는 과욕과 오판으로, 지난 3월에 본인이 직접 다수의 employer peer review에 입력하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행위를 하였습니다." 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 분명한 것은 조작으로 인해 중앙대학교에 대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고 길게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08일 기획처장과 총학생회장 면담 결과 기획처장과 총장은 현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했으며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직원 한명의 오판으로 해당 사건이 발생되었다라고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2. 정원이동 관련 면담 내용

- 정원이동과 관련하여 최종 기한은 내년 4월이며 2학기부터 논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기획처장의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 논의 안건

1. QS평가 관련 중앙운영위원회 대응

- 현재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와도 긴밀히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사안이 중하고 긴급한만큼 중앙운영위원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려합니다.

1안: 총학생회 서울·안성 공동성명 발표, 중앙운영위원회 릴레이 성명 발표

2안: 총장단(총장, 행정부총장, 교학부총장), 기획처장, 평가팀 팀장, 서울·안성 중앙운영위원회 연석회의 개최

- 1안 의결 결과 8단위중 8단위 찬성으로 가결
- 2안 의결 결과 8단위중 8단위 찬성으로 가결, 월요일 18시
- 릴레이 성명 발표는 총학생회 성명을 시작으로 각 단위별 성명 게시 예정
- 성명에는 논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QS평가 관련 내용만 작성하는 것으로 결의
- 현재 총학생회에서 초안 작성중이나 요구안은 대략 4가지 정도로 요약

1) 정확한 납득 가능한 조사 결과 요구 2) 관리체계 보완하여 보고 3) 총장을 필두로 사안 해결에 전력을 다하라 4) 정확한 경위를 보고하고 사과

- 연석회의는 공문과 함께 요청할 예정

❑ 기타 안건

1. 학생회비 계좌 관련 한국장학재단 공문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생처 장학담당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해당 내용은 학생회비 계좌운영에 있어 개인 계좌로 운영할시 소득으로 산정 될 수 있으니 단체명의 계좌 사용을 권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현 학생회비 계좌 현황
  인문대, 공대, 간호대, 약대, 동연 : 개인
  사과대: 단체
-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 추후 총학생회에서 우리은행에 공문으로 단체명으로 동시에 계좌개설이 가능한지 파악 이후 공지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